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 정 하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최 정 원²⁾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본 연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불안해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더 높았으며, 연인관계에서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부민감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불안정애착 경험은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모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커플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성찰하고 거부에 대한 인지-정서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애착이론과 거부민감성 모형을 경험적 자료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불안정애착, 거부민감성,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청년기

* 이 연구는 2019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E-mail: hippojw@gmail.com)

I. 서론

청년기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로 청년들은 연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원한다(Erikson, 1963). 이전 발달단계에 비해 연애상대를 만날 기회도 더 증가하여 친밀하고 건강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청년들은 상호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연인에게 수용되기 위해 연인관계를 시작하지만(Downey, Bonica, & Rincon, 1999) 복잡한 연애과정에서 수용만을 경험하지는 않으며 거부를 경험하기도 한다. 연인관계에서의 거부나 갈등 상황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지금까지 연인관계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들(양승애, 서경현, 2015; 주지현, 서경현, 2015)은 주로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특히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아동과 달리 청년의 경우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청년기 연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보다 은밀한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발생 빈도 측면에서도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수의 청년들이 경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계적 공격성은 다수의 연인관계 일상에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이란 타인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Murray-Close, Ostrov, Nelson, Crick, & Coccaro, 2010). 일례로 신체적 공격성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반면,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그 관계나 소속감을 해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Crick & Grotpeter, 1995; Linder, Crick, & Collins, 2002; Morales & Crick, 1998). 연인관계 맥락에서는 연인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행동하거나 연인을 헐뜯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연인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Linder et al., 2002), 우울 및 불안, 분노를 느끼며 알코올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Goldstein, Chesir-Teran, & McFaul, 2008).

다른 유형의 공격성과는 달리 관계적 공격성은 소속감, 수용, 친밀감과 같은 애착 욕구의 핵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Oka, Sandberg, Bradford, & Brown, 2014).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로부터 기인한 관계도식은 전생애에 걸쳐 개인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비일관적이었거나 무관심하게 자녀를 대한 경우 자녀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후 연인과의 관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 불안정한 관계와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배라영, 최지영, 2018a; Leadbeater, Sukhawathanakul, Holfeld, & Temple, 2017; Linder et al., 2002)에서도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정서적 학대, 애착과 같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 연구(조우연, 김경희, 2015; 주지현, 서경현, 2015)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과 연인 간의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어떤 기제로 연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Levy, Ayduk과 Downey(2001)는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부민감성 모형(rejection sensitivity model)을 제안하며, 어린 시절 타인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적 과정(cognitive-emotional process)을 설명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한 경험이 이후 상대방의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 이러한 지속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거부민감성은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청년의 현재 연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모형(Levy et al., 2001)을 적용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란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가 경험한 정서적 거리감과 양가적 감정을 의미한다(김미선, 2016).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여 자녀가 부모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가 조건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용을 해주는 경우 자녀는 불안정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관심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동시에 버려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애착이론(Bowlby, 1973, 1980)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에 청년기의 관계 경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 시절 부모가 반응적이고 민감하게 대했다면 이후 자녀는 부모 외의 주변 사람 역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반면,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면 주변 사람을 불안하고 믿지 못할 존재로 지각할 수 있다.

Levy, Meehan, Weber, Reynoso와 Clarkin(2005)은 애착형성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불신이나 의심, 공격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개인은 성장 후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주지현, 서경현, 2015)에서도 부모와의 신뢰를 적절히 형성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연인에게 집착하여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은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Downey와 동료들(1999)은 어린 시절 불안정애착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후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expectation)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의 거부 경험이 청년기 연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은 수용과 거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 즉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을 통해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예상하여 불안 및 분노를 느끼며, 애매모호한 단서에도 이를 쉽게 거부로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박명진, 양남미, 2017). 거부민감성 모형(Levy et al., 2001)에 따르면 과거에 거부당한 경험에 의해 거부민감성이 형성되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거부 단서(rejection cue)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일단 거부를 지각하면 이에 대한 강한 분노나 공격적인 표현을 보일 수 있다.

선행연구(배라영, 최지영, 2018a; 양승애, 서경현, 2015; 최연숙, 홍혜영, 2016)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 냉담하고 무관심한 양육태도, 불안정애착 등과 같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의 거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심한 학대 경험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거나 조건적으로만 수용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거부를 경험하여 거부민감성을 형성할 수 있다(Downey et al., 1999). 이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여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청년들은 부모 외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이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거부민감성은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

계에서 활성화된다는 점에서(Levy et al., 2001) 청년기 주요관계인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게 되면 연인관계에서도 쉽게 거부에 민감해져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거나 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연인이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이 사소하고 애매모호한 단서도 거부로 간주하여 매우 경계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거부상황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수용받기 위해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Downey et al., 1999). 따라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강압하고 통제하고자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지현과 서경현의 연구(2015)에서도 부모와 애착문제를 가진 사람은 상대연인을 믿지 못하고 거부당할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어릴 적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청년기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이 청년기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연인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애착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두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살펴왔던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세 변인

들 간의 경로모형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각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청년기 거부민감성(이영아, 이인혜, 2016; Erozkhan, 2009)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배라영, 최지영, 2018b; Goldstein, 2011)에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기제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Leadbeater et al., 2017). 이상의 연구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성별을 고려하여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성차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이들 경로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애착이론과 거부민감성 모형 및 관련 선행연구들(성정아, 홍혜영, 2014; Kahya, 2018)을 바탕으로 거부민감성이 불안정애착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부모애착과 연애관계 만족, 그리고 학대경험과 정서 조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강하은, 조영아, 2017; 양난미, 배성희, 2017) 부모와의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매개효과 및 변인들 간의 구조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착이론과 거부민감성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년기 거부민감성은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모형은 성차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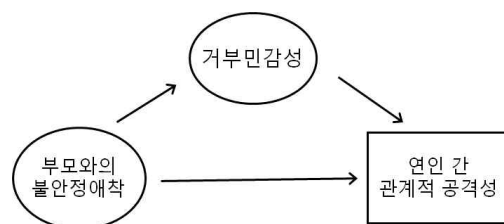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부분매개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3.3세($SD = 2.23$)였으며, 이들 중 남학생이 137명(46%), 여학생이 161명(54%)이었다. 현재 연인과의 평균 교제 기간은 15개월($SD = 16.37$)이었으며, 그 범위는 1개월에서 8년 4개월까지 넓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인과 일주일에 평균 3.42회($SD = 1.91$)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1학년은 47명(15.8%), 2학년은 39명(13.1%), 3학년은 101명(33.9%), 4학년은 96명(32.2%), 수료생은 15명(5%)이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교육이 162명(54.4%), 자연·공학이 69명(23.2%), 의학·약학이 9명(3%), 예체능계가 18명(6%), 기타는 36명(12.1%)이었다.

2. 측정도구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불안정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선(2016)이 Bowlby(1980)와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의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AAI(George, Kaplan, & Main, 1985), PAS(Proctor, 1998), IPPA-R(Armsden & Greenberg, 1987), PAM(Fouladi, Moller, & McCarthy, 2006) 등의 애착척도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초기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안-양가애착(9문항)과 회피애착(9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양가 애착 요인은 어린 시절 불안정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낀 애착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회피 애착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낀 정서적 거리감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기억해 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설문으로 약 5~12세에 경험한 아버지(혹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았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랬다’의 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미선(2016)은 척도 개발 시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아버지 .84, 어머니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아버지 .86, 어머니 .89, 전체 .92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거부민감성 이론(Levy et al., 2001)을 기초로 RSQ 척도(Downey & Feldman, 1996)를 참고하여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기분노(5문항), 예기불안(3문항), 과잉반응(4문항), 거부지각(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분노 요인은 거부를 기대할 때 느끼는 분노감을, 예기불안 요인은 거부를 기대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과잉반응 요인은 거부를 지각했을 때의 과민한 반응을 의미하며, 거부지각 요인은 애매모호한 거부단서를 거부로 지각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는 척도 개발 시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예기분노 .89, 예기불안 .75, 과잉반응 .84, 거부지각 .74, 전체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예기분노 .86, 예기불안 .76, 과잉반응 .84, 거부지각 .75, 전체 .89로 나타났다.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와 Crick(1998)가 개발한 SRASBM(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중 연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하위척도만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 하위척도의 문항은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번역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자에게 척도의 문항이 원래의 표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교제 중인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원하는대로 연인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연인과 헤어지겠

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나는 연인에게 화가 날 때 연인이 질투하게끔 행동한다’ 등이 있다. Murray-Close와 동료들(2010)은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Linder와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7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정도나 응답 방식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에 조사 대상 대학교의 교양 및 전공과목 강사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대학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송하였다. 참여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본설문지 응답에 앞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응답당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경우에만 본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강의시간 전후를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여 학생과 협조 강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298

부(97.07%)를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크기 지표인 Cohen의 d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불안정애착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였고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경로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 TL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1.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은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 = -.93, p > .05$).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 = -2.29, p < .05$)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성별의 효과크기는 .27로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은 여학생 집단($M = 2.68, SD = .74$)이 남학생 집단($M = 2.48, SD = .74$)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 =$

표 1.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 비교 결과

	전체($n = 298$)	남자($n = 137$)	여자($n = 161$)	t	Cohen's d
	$M(SD)$	$M(SD)$	$M(SD)$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2.80(.81)	2.75(.74)	2.84(.86)	-.93	.11
거부민감성	2.59(.75)	2.48(.74)	2.68(.74)	-2.29*	.27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2.03(.91)	1.83(.78)	2.21(.98)	-3.71***	.43

* $p < .05$. *** $p < .001$.

-3.71, $p < .001$)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 성별의 효과크기는 .43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생 집단($M = 2.21$, $SD = .98$)이 남학생 집단($M = 1.83$, $SD = .78$)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형 검증

남녀 집단별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사전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이변량 관련성이 남자 표본과 여자 표본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불안정애착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남: $r = .40$, $p < .001$; 여: $r = .23$, $p < .01$). 즉, 남녀 모두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집단 모두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남: $r = .35$, $p < .001$; 여: $r = .42$, $p < .001$). 이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현재 연인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남녀 불안정애착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남: $r = .28$, $p < .01$; 여: $r = .35$, $p < .001$).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표 2. 남녀 집단별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거부민감성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	.28**	.40***
거부민감성	.35***	-	.35***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23**	.42***	-

주. 남학생($n = 137$)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학생($n = 161$)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 $p < .01$. ***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54~.82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표 3 참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LI = .95, CFI = .97, RMSEA = .07). χ^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했을 때 χ^2 값의 차이가 18.78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도가 1일 때의 임계값인 3.84보다 큰 값이므로 경쟁모형보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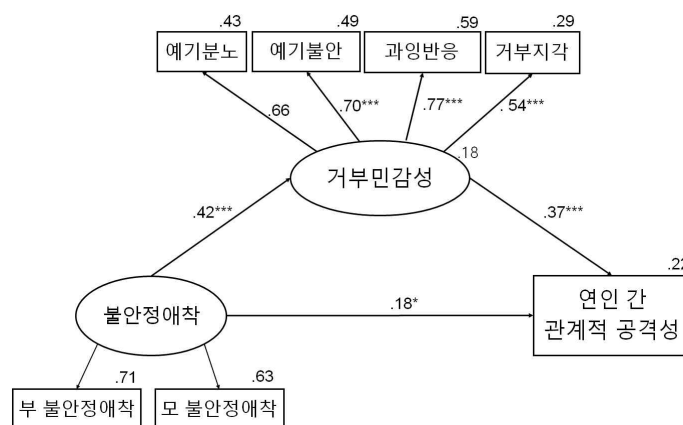
에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거부민감성에 정적인 영향을($\beta = .42, p < .001$), 거부민감성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 p < .001$).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반응하며, 이는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8, p < .05$).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표 3.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Delta df$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16.68	12	.004	.95	.97	.07	18.78/1***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35.46	13	.001	.94	.96	.08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2.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표 4.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거부민감성	.42**		.42**
거부민감성→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37**		.37**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18*	.15*	.33**

* $p < .05$. ** $p < .01$.

거부민감성이 보이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4 참고),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5$, $CI_{95\%} .09-.21$). 또한,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은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22%를 설명하였다.

3.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관계 모형의 다집단 분석결과

최종 선정된 부분매개모형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 검증, 구조 동일성 검증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의 자료에 모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남자 집단의 경우, TLI는 .99, CFI는 .99, RMSEA는 .04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5 참고). 여자 집단의 경우, TLI는 .89, CFI는 .94, RMSEA는 .10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즉, 남녀 두 집단 모두에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집단 간 형태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6 참고).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TLI = .93, CFI = .96, RMSEA = .06)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Delta\chi^2_{2, N=298} = 4.42$, $n.s$) 두 집단이 구성개념에 대해 동일하게

표 5. 남녀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남	14.05	12	.298	.99	.99	.04
여	31.62	12	.002	.89	.94	.10

표 6.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Delta df$
기저모형	45.66	24	.005	.93	.96	.06	
측정동일성 모형	50.08	26	.003	.93	.96	.06	4.42/2
구조동일성 모형	56.29	30	.003	.94	.95	.05	6.21/4

인식하다고 볼 수 있다.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 따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Delta\chi^2_{4, N=298}=6.21, ns$)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거부민감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불안정애착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뒤 매개경로에서의 성차를 살펴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거부민감성과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거부민감성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거부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나영, 조유진, 2009; 이영아, 이인혜, 2016; Erozkay,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여 무시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영자, 정남운, 2016)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스트레스호르몬인 코르티솔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troud, Salovey, & Epel, 2002)를 통해 거부경험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도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함께 고려해볼 때, 청년기 거부민감성의 성차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관계중심적이고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역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연인관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 관계나 상대방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상대 연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인관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과(배라영, 최지영, 2018b; Goldstein, 2011; Morales & Crick, 1999; Murray-Close et al.,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대 연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손연우, 권호인, 2018)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춘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에게 더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Crick & Grotpeter, 1995)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공격성의 전형적인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형태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성차와 관련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은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부모가 비일관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경우 자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뢰나 관계의 기

술을 학습할 기회가 부재했기 때문에(Linder et al., 2002) 이후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같이 연인관계 역시 불안정하거나 와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감을 대처하고자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커플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패턴으로부터 분리되어 연인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조율하도록 돕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미선, 2016).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불안정애착을 경험하는 것은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높지게 하며, 이러한 거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은 청년기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하였다는 연구결과(양승애, 서경현, 2015)와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한다는 연구(성정아, 홍혜영, 2014), 부모와의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애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양난미, 배성희, 2017)와

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 감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불안정애착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거부민감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은 거부에 대한 기대(expectation)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거부민감성은 이전의 거부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부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활성화된다. 즉,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이 존재할 때 위협에 대한 방어적 체제로 작용한다(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연인관계는 갈등과 거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적 맥락이므로 거부민감성은 특히 연인 간 관계에서 쉽게 활성화되어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에서 기인한 불안감이 이후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Bowen(1976)의 이론과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원가족관계에서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면 개인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불안은 이후 연인관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불안정성과 자신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등 현재의 관계나 상대의 감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반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해하고 편안한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다(Benson et al., 1993). 이와 같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경험은 자신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기 연인관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보아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인지-정서적 과정을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부단서로 인해 느끼는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어 건강한 방식으로 연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Murphy & Russell, 2018). 불안정애착의 경우 이미 과거의 경험이며 변화에 저항적이라는 점에서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은 보다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부단서를 지각하고 거부로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통하여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성별에 따른 매개모형의 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남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각 변인 간의 경로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도 성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이가빈, 2019), 대인 간 외상경험과 친밀감 두

려움 간의 관계(이은지, 2019)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남녀 모두 부모의 비일관적이거나 무관심한 양육태도로 인해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한 경우,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의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연인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민감성에 대한 인지-정서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청년기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직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인과의 평균 교제 기간은 15개월로 나타났으나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마다 교제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기간에 따라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연구에서는 교제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인관계에서 표현되는 애착의 특성은 동성부모보다 이성부모와의 애착관계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성부모와 이성부모가 주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도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거부민감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동안 친구나 교사 등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확장된 대인관계 경험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경우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척도의 신뢰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 척도와 관련된 연구 역시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이론과 거부민감성 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성별과 관계없이 매개 경로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거부에 대한 인지-정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하은, 조영아 (2017). 아동의 학대 경험과 정서조절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618-627.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미선 (2016). 초기부모애착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4), 95-113.
- 김영자, 정남운 (2016).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395-409.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배라영, 최지영 (2018a).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배라영, 최지영 (2018b).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2(1), 29-52.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양난미, 배성희 (2017).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연애관계 만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56(1), 339-370.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이가빈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아, 이인혜 (2016).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641-660.
- 이은지 (2019).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초기 성인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우연, 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 주지현, 서경현 (2015). 부모와의 애착 및 이성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5), 209-229.
- 최연숙,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95-31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663-672.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Vol2.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Vol3. Basic Books.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ahlen, E. R., Czar, K. A., Prather, E., & Dyess, C.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2), 140-154.
- Downey, G., Bonica, C., & Rincon, C. (1999).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B.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orton.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ouladi, R. T., Moller, N. P., & McCarthy, C. J. (2006). Examination of internal consistency and construct validity of scores on the Parental Attachment Scale: Preliminary psychometric resul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1), 2-30.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Goldstein, S. E. (2011).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8(4), 645-656.
- Goldstein, S. E., Chesir-Teran, D., & McFaul, A. (2008). Profiles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3), 251-265.
- Kahya, Y. (2018).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in a Turkish female sample: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 Leadbeater, B. J., Sukhawathanakul, P., Holfeld, B., & Temple, J. R. (2017). The effects of continuities in parent and peer aggression on rela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Prevention*

- Science*, 183, 350-360.
- Levy, K. N., Meehan, K. B., Weber, M., Reynoso, J., & Clarkin, J. F. (2005).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38(2), 64-74.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inder, J. R., Crick, N. R., & Collins, W. A. (2002).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perceptions of parent, peer,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1(1), 69-86.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 Murphy, A. M., & Russell, G. (2018). Rejection sensitivity, jealous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13), 2118-2129.
- Murray-Close, D., Ostrov, J. M., Nelson, D. A., Crick, N. R., & Coccaro, E. F. (2010). Proactive, reactive,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in adulthood: Measurement, predictive validity,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 with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6), 393-404.
- Oka, M., Sandberg, J. G., Bradford, A. B., & Brown, A. (2014). Insecure attachment behavior and partner violence: Incorporating couple perceptions of insecure attachment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0(4), 412-429.
- Proctor, M. T. (1998). *Attachment to God: Is it a viable 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God, child and adult attachment experiences, God concept and the quality and nature of relationship with God*. Unpublished thesis, UWS, Australia.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Stroud, L. R., Salovey, P., & Epel, E. S. (2002). Sex differences in stress responses: social rejection versus achievement stress. *Biological Psychiatry*, 52(4), 318-327.

1 차원고접수 : 2019. 07. 05.

수정원고접수 : 2019.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9. 09. 18.

Effects of Insecure Attachment to Parents in Childhood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to Romantic Partners: Mediated by Rejection Sensitivity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Choi, Jung-Wo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link between insecure attachment to parents in childhood to adolescent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Here, a total of 298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currently in committed relationship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average, the female group reported a higher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compared to the male group. Second, insecure attachment to parents in childhood influence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directly and indirectly via the rejection sensitivity of the adolescents. Third, the mediation model was invariant across adolescent gender. These results suggest a highlighted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which may increase relational aggression in a romantic relationship. Attachment theory and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may provide a usefu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escal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Keywords: insecure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adolescents